

터키, 이스라엘에 수억 달러의 식수공급 예정

- 터키와 이스라엘은 8월 6일 장기 식수공급 약정에 합의하였음. 터키가 이스라엘에 식수를 수출하는 것으로서, 터키측은 향후 20년간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- 이로써 이스라엘은 매년 5,000만 평방미터의 식수를 수입하게 되는데, 이는 연간 식수소비량의 2.5%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매년 5억 평방 미터의 식수가 부족한 실정임
 - 터키는 이를 위해 지중해 연안 안탈라 지방 Manavgat 강가에 1억 5,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생수공장을 완공하였음

- 본 건의 쟁점사항인 총 계약규모, 운송방법, 위생기술, 양국간 위험분담 문제 등은 향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임
 - 이스라엘 내각은 금년초 터키로부터의 식수도입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, 금년 5월에는 이스라엘 정부대표단이 터키를 방문하여 터키 식수관리국(State Water Works)과 식수수입 문제를 협의하였음.

- 양국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부분이 식수가격인 데, 수년간 식수도입 계약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결국은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 - 식수 수입가격은 평방 미터당 0.75-0.8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
 - 이스라엘 정부는 평방 미터당 0.54달러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수담수화설비 건설을 고려하고 있으나, 담수화설비가 건설되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

- 터키 정부는 식수수출 계약을 대규모 무기도입 거래와 연계시키고 있는 양상이며, 이스라엘로부터 탱크와 항공기 제조기술 등의 도입 협상을 추진중에 있음
 - 또한, 터키가 추진중인 200억 달러 규모의 관개시설 프로젝트(GAP Irrigation scheme)중 7억 달러규모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이스라엘 건설사가 참여할 예정
 - 터키정부는 최근 145대의 공격용 헬기 도입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이유로 미국의 Bell-Textron사와 협상을 전격 중단하고 이스라엘-러시아 컨소시엄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
- 1998년 터키정부는 자국내 풍부한 식수를 해상으로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2000년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승인하였으나, 이스라엘은 입찰과정에서 이를 취소한 바 있음
 - 당시 터키정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식수도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6억 7,000만 달러의 M-60탱크 도입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음
- 한편, 터키와 이스라엘은 1996년 아랍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
 - 2001년 7월 터키가 60%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을때 이스라엘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터키를 방문하여 조언할 정도로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

전문연구원 황수영(☎3779-6655)
 E-Mail:sooyhwang@koreaexim.go.kr